

마흔 세살에 댄스곡 '시웃' 으로 돌아온 성시경

“저 나이에 열심히 했구나 생각해줬으면”

10년 만의 정규앨범 8집 발매
“긴 외도, 대단히 후회하고 있죠
가수 그만둘 때까지 사랑 얘기만...”

“마흔세 살의 댄스곡입니다. 제가 댄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한테 ‘저 저 나이에 열심히 무언갈 했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오는 21일 10년 만의 정규앨범 8집 ‘시웃(시웃)’을 발매하는 가수 성시경은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타이틀곡 ‘아이 러브 유 (I Love U)’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지난 20년 동안 ‘뭉이 떨어지는’ 목소리로 술한 발라드 히트곡을 냈던 그가 춤을 걸들인 빠른 템포의 곡으로 돌아온다.

성시경은 “내일이면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고 춤추는 영상도 공개될 텐데, 보신 분들이 ‘아 역시 끝내주는구먼’이 아니고 ‘역시 한계가 있구먼’ 하면서 웃으실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온앤오프”라는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정말 많은 걸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느껴요. 무언가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요. 저한테는 이번 곡이 그랬어요. 나도 연습해서 댄스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거죠”

기자회견에서 먼저 공개한 뮤직비디오에는 분홍색 정장을 차려입은 성시경이 댄스들을 거느리고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온다.

성시경은 자신의 춤을 “뒤뚱거리는 모습”이라며 웃었지만 경쾌한 벨로디, 설렘이 듬뿍 담긴 가사가 춤사위와 어우

러지며 어색하다는 느낌이 금세 사라진다. 하늘에서 날개를 관장하는 신적인 존재가 지구에 살고 있는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내려온다는 스토리와 화려한 색깔의 영상에서는 ‘요즘 세대’의 감성도 느껴진다.

성시경이 이런 신선한 시도를 한 것은 오랫동안 앨범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 차원인 것처럼도 보인다.

2011년 5월 나온 7집 ‘처음’ 이후 앨범을 내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곧 앨범을 발표하겠다고 그의 약속은 점점 밀렸다.

거기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매 일정이 연기되면서 꼭 10년을 채우고 말았다.

성시경은 “요즘 CD를 내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것 같다. 내 스타가 내준 굿즈를 사주는 형태로 변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점점 앨범을 막 내야겠다는 생각 덜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면서 본인업 음악에 무한정 시간을 쏟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시간이 오래 걸린 대신 20년 만에 처음으로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성시경과 영혼의 단짝인 심현보의 곡을 비롯해 김이나, 나원주, 권순관, 이규호 등 다양한 아티스트가 작업한 곡을 갖고 돌아왔다.

성시경이 이번 발라드 ‘우리 함께 사랑한 건’, 스트링 편곡으로 그의 목소리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너를 사랑했던 시간’, 팬송 ‘마음을 담아’, 레트로한 느낌을 주는 ‘왓 어 필링’(WHAT A FEELING) 등 총 14곡이 수록됐다.

특히 이번 앨범에서 성시경은 데뷔 후 처음으로 조규찬이 작사·작곡한 곡을 신게 됐다. 2년 트랙 ‘방랑자’다.

원래 조규찬 본인이 부르기 위해 만든 곡이지만 심현보의 설득으로 성시경에게 선물했다.

지금까지 성시경의 앨범이 그랬듯 이번 앨범 역시 관통하는 큰 메시지는 없다. 사랑, 슬픔, 시간, 상처, 사람, 손길, 시련 등 ‘시웃’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음악으로 풀어냈다.

성시경은 자신이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좋은 작품이 있으면 내 스타일로 연기하는 가수”라며 “일부 팬들은 남의 노래만 불러달라고 하기도 한다”며 웃었다.

“저는 그냥 가수를 그만둘 때까지 사랑 얘기만 하고 싶기도 해요. 성숙했을 때 부르는 사랑 노래도 좋을 수 있고, 40대 때 20대의 풋풋함을 노래할 수도 있잖아요. 사랑 노래 안에서 표현하고 싶은 게 충분히 많아요.”

2000년 싱글 ‘내게 오는 길’로 데뷔한 성시경은 어느새 관록이 엿보이는 중견 가수로 성장했다.

싱글 발매 당시 이승환이 유희열에게 “이제 발라드 계는 성시경의 시대”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시경은 데뷔 후 20년 동안 ‘발라드의 왕자’ 자리를 지켰다.

“거리에서”, ‘넌 감동이었어’, ‘두사람’, ‘좋은텐데’, ‘너는 나의 봄이다’,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사랑받았다.

그러나 그 역시 이번 앨범은 후배 가수들만큼이나 신인 가수의 마음으로 임했다고 강조했다.

“모든 게 새로워요. 댄스곡을 하는 것도,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앨범 홍보하는 것도,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요. 하하.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요. 대중분들도 약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10년 만에 춤추는 음악으로 돌아온 마흔세 살 가수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살 소녀의 발칙한 복수극 ‘목표가 생겼다’ 2%대 출발

MBC 새 수목드라마

자신의 삶을 불행에 빠뜨린 이들을 향한 복수를 꿈꾸는 19살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목표가 생겼다’가 2%대 시청률로 출발을 알렸다.

2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 방송된 MBC TV 새 수목드라마 ‘목표가 생겼다’ 첫 회 시청률은 2.7%~2.8%를 기록했다.

전날 방송에서는 동네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재영(류수영 분)이 자신을 버린 아빠라고 생각한 19살 이소현(김환희·20)이 복수를 계획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5년 전 영화 ‘곡성’에서 넘치는 존재감을 뽐냈던 김환희가 성인이 된 후 처음 선택한 작품으로도 기대를 모았던 ‘목표가 생겼다’는 신선한 이야기와 연출로 60분을 채워냈다.

무엇보다 불행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자취한 고등학생을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표현한 김환희의 통통 튀는 연기가 돋보였다.

더불어 중견 배우인 류수영과 이영진은 물론이



고 신에 김도훈까지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극을 뒷받침했다.

다만 4부작으로 편성된 다소 짧은 길이의 작품인 만큼 단막극과 유사한 느낌을 지우기는 어려웠다. 이에 대해서는 신선하다는 평가와 충분한

재미를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한편, 전날 방송된 KBS 2TV ‘대박동산’은 4.4%~6.5%, JTBC ‘보스쿨’은 5.652%(이하 비지상과 유료가구)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tvN ‘마우스’는 6.2%의 시청률로 종영했다. /연합뉴스

트와이스, 역대뷰 MV 17편...세계 걸그룹 중 최다

일본 곡 ‘브레이크스루’ 뮤직비디오
유튜브 1억건 넘어...리틀 믹스 제쳐

트와이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역대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한 걸그룹으로 기록됐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트와이스의 일본 곡 ‘브레이크스루’(reakthrough) 뮤직비디오가 지난 15일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건을 넘었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7월 발매된 지 1년 10개월 만으로, 트와이스의 통산 17번째 역대뷰 뮤직비디오다.

전 세계 걸그룹 가운데 최다인 16편의 역대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한 리틀 믹스(Little Mix)의 기록을 넘어섰다.

트와이스는 ‘TT’, ‘라이키’, ‘왓 이즈 러브?’, ‘치어 업’, ‘팬시’ 등 모든 활동 곡의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1억건을 넘기며 이 분야에서 강세를 보여왔다.

이들은 다음 달 11일 한국 새 미니앨범 ‘데이스



트 오브 러브’(Taste of Love)를, 오는 7월 28일에는 일본 정규 3집 ‘퍼펙트 월드’(Perfect World)를 발매하며 한일 팬들을 만난다.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